

2004 지방재정 세미나

개 회 사

조 기 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오늘 韓國地方財政共濟會와 韓國地方財政學會가 共同으로 개최하는 「2004地方財政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京鄕各地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內外貴賓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특히 國政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주신 김주현 行政自治部 次官님, 박준영 全羅南道 知事님, 그리고 이재은 韓國地方財政學會 會長님을 비롯하여, 오늘 세미나에서 分野別 課題를 맡아주실 發表者·討論者 여러분들께 甚深한 敬意와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地方財政 發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동참하여 주신 地方議會 議員님들과 公務員, 그리고 學會 會員 등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參與政府가 地方分權을 國政의 核心課題로 설정하면서 마련한 地方分權特別法, 國家均衡發展特別法, 新行政首都建設을위한特別措置法 등 3大特別法이 지난해 말 國會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地方分權을 통해 실질적 地方自治를 실현하고, 地域均衡發展을 통해 地方과 首都圈이 상생하는 國家發展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制度的 基盤을 마련했다는데,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1995년 民選自治團體長 選出을 계기로 본격적인 地方自治制가 施行된 이후 지난 10년간 적지 않은 費用을 지불하고 施行錯誤를 거치면서 地方自治와 分權을 學習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은 우리나라의 地方分權에 있어서 실질적인 元年이 될 수 있으며, 이제 地方分權은 國政運營의 基調이자 거스릴수 없는 시대적 課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地方分權은 中央에 集中된 權限과 責任을 地方에 分散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결코 權限의 상실이나 領域의 확대가 아니라, 地方과 中央이 서로 調和를 이루고

適應함으로써, 民主化와 能率化를 이루어내는 積極的인 地方自治의 觀點에서 接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制定된 3大 特別法은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그리고 住民 모두에게 制度的으로나 構造的으로 많은 變化와 새로운 課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地方化時代의 패러다임 속에서, 中央政府는 制度的 틀안에서 具體的 代案을 마련하고, 地方은 새로운 制度에 걸맞는 積極的인 參與와 責任意識을 형성함으로써 모든 主體들이 더불어 相生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地方分權의 核心 構成要素이자 先決要件인 財政分權은 다양하게 定義될수 있지만 地方을 향해 보다 많은 財政上的 權限과 財源을 移讓하는 政策選擇이 그 中心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地方의 課稅自主權 확대, 中央政府의 財政的 規制 및 監督의 축소, 地方의 財政支出 확대 등이 財政分權의 要諦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財政分權은 權限과 財源의 移讓을 한 축으로 하면서 또 다른 한 축으로 財政的 責任性을 중요한 要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財政分權이 소기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分權의 수혜자들이 權限移讓에 상응하는 財政的 責任性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를 토대로 參與政府는 地方分權을 구현하기 위한 財政分權 로드맵도 제시했고, 현재는 그것을 具體化시키는 政策手段을 講究 내지 實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大 特別法의 制定이후 많은 變化가 초래되고 있는 地方財政制度와 構造의 變化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課題를 檢討할 必要性이 切實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脈絡에서 韓國地方財政共濟會와 韓國地方財政學會는 「地域均衡3大特別法 제정이후 財政分權의 方向과 課題」라는 主題로, 地方分權의 先決要件인 財政分權의 必要性和 範疇를 다시 확인하고 地方財政의 刷新的이고 改革的인 發展方向을 摸索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세미나에서는 현장감있고 생동감있는 研鑽機會를 마련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참여하는 團體別 財政運營 垂範事例發表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가 地方의 발전이 國家發展으로 昇華되고, 國家發展이 地方의 발전으로 還流될 수 있는 論點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導出될 수 있도록, 關係 專門家 여러분의 활발한 參與와 다양하고도 생생한 地方自治團體 現場의 목소리가 개진됨으로써, 地方財政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契機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由緒깊은 南道の 藝鄉이자 21세기 新海洋時代를 주도하는 環黃海圈 중심 도시인 이곳 全羅南道 木浦市에서 이와 같이 유익한 大討論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行事準備를 위해 勞苦를 아끼지 않은 關係者 여러분과 學會 會員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場을 가득 메워주신 參加者 여러분께 다시 한번 甚深한 感謝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2004年 7月 8日

韓國地方財政共濟會 理事長 趙 基 安